

“모든 것 잃었다” 조선대 ‘패닉’

로스쿨 탈락 긴급대책회의... “정부 상대 싸워야” 비장감도

30일 오후 조선대 법학대학 6층 회의실. 법학과 교수 20여명 참석 한 가운데 로스쿨 탈락에 따른 긴급대책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참석자들의 표정에는 정부를 향한 분노와 함께 비장감까지 배어 있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은 것이나 다름없다. 선정기준 자체가 명쾌하지 않다. 지역안배를 고려했다고 하는데 충실했는지 의문이다. 법학도서관이나 기숙사 하나 없이 부지 확보만 한 대학은 선정하고 시설을 모두 갖췄음에도 조선대가 탈락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박용현 전 법대학장)

“도저히 납득이 안된다. 평가 지표들이 어떤 기준인지, 구체적으로 공개하라. 정부의 최종 발표에 실날 같

은 기대를 걸고 있다.” (김춘환 법대 학장)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너무 충격적이다. 수긍하지 말고 소송을 제기하자. 정보공개청구와 법률적 대응도 해야한다. 부산·경남에는 두 개인데 왜 광주·전남에는 하나인가.” (김범철 법학과 학과장)

“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상심이 크다. 다른 대학들은 정부, 청와대와 교감을 했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는 정보가 너무 취약했다. 지역의 대표적인 사학이 이런 취급을 당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최 의 도중 나간 A교수)

이런 분위기는 이날 하루종일 조선대 대를 짓눌렀다. 이날 낮 조선대 앞 한

식당. 점심 때를 맞아 조선대 법대 교수와 교직원들이 모여들었다. 이들은 한동안 망하니 허공을 응시하는가 하면, 식사를 하다가도 중간중간 한숨을 내쉬었다.

“도대체 왜 광주·전남이, 그리고 조선대가 이같은 대접을 받아야 하나냐”는 푸념도 섞여 있었다. 일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 정부를 상대로 싸워야 한다”고 비장한 심정을 토로했다.

김춘환 법대학장은 “권역별로 점수를 매겼다고 하는데 조선대가 광주권역 5개 대학 중에 꼴찌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이철갑 기획조정부실장은 “조선대 처럼 완벽하게 인프라를 준비한 곳은

전국적으로 없다”며 “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학생을 받을 정도로 완벽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인 법대 교수는 “조선대 만의 문제가 아니다. 광주·전남이 나서서 이같은 결정의 불합리함을 주장해야 한다.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이 동원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타 대학의 로비실도 조심스럽게 나왔다. 이철갑 부실장은 “다른 대학들이 건강식품을 택배로 보냈으나 파비를했다는 데 조선대는 너무 손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설 앞두고 곳곳 ‘택배 분쟁’

물품 파손·분실 등 보상 마찰 잇따라

회사원 유모(34·광주시 북구 임동)씨는 지난 14일 조명기기 관련 동호회로부터 38만원 상당의 형광등을 구입했다. 그러나 택배로 보냈다는 형광등은 도착하지 않았다. 사흘이 지난 뒤 Y택배로부터 형광등을 분실했다는 전화를 받았다.

유씨는 “택배회사는 보상해주겠다고 말하면서도 ‘2만원짜리 싼 형광등 아니냐’며 흥정을 시도했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자영업자 강모(57·광주시 남구 진월동)씨는 지난 24일 설 명절을 맞아 나누시에 살고 있는 부모에게 줄 선물이 건강식품을 택배로 보냈으나 파손된 채 도착했다. 택배회사는 강씨에게 “물건이 파손될 수 있다는 고지를 듣지 않았느냐”며 전액 보상을 해주지 못하겠다고 주장했다.

광주 YMCA·YWCA 소비자상담실 등에 따르면 지난 29일 현재 접수된

택배관련 민원은 10여건. 그러나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택배 관련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1일 개정된 ‘택배 표준약관 개정안(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택배나 퀵서비스를 이용할 때 운송장이나 배송장에 물품 가격을 기재하지 않고 물품의 훼손이나 분실될 경우에도 손해배상한도액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한도액도 최고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광주 YMCA 소비자상담실 김미희 부장은 “택배 주문시 물품 가액과 물품명, 도착시간을 꼭 적어야만 피해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며 “설 명절 전후에 물건이 많이 배달돼 택배회사의 실수가 많아질 수도 있으니 소비자가 먼저 운송장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회는 30일 오전 광주시 서구 농성동 메리트웨딩홀에서 ‘광주 당면 현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란 성명서를 통해 ‘광주·전남을 소외시킨 로스쿨 설치 예비인가 결정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우체국 사칭 보이스 피싱 ‘주의’

최근 설 명절을 앞두고 소포우편물이 늘면서 우체국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빼내는 일명 ‘보이스 피싱’(Voice Phishing) 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30일 전남체신청과 광주우체국 등에 따르면 이들의 사기수법은 우체국을 사칭,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해 집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빼가는 것으로 이달에만 수십 건이 접수됐다.

우체국을 사칭한 이들 전화는 ‘소포가 도착했다’, ‘반송된 소포가 있다’며 ‘택배가 도착했으니 전화번호를 불러라’, ‘안내를 원하시면 9번을 누르라’는 ARS 안내 이후 9번을 누르면

상담원이 신용카드 번호 등 개인정보를 자세히 묻는 뒤 갑자기 끊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우체국의 경우 택배 우편물 배달 예고 및 결과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안내할 뿐 ARS나 음성전화로는 하지 않고 있다.

전남체신청 관계자는 “ARS전화 요구에 잘못 응대할 경우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돼 범죄에 악용되거나 부당한 전화요금 청구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며 “이 같은 전화를 받으면 즉시 끊고 가까운 우체국이나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다른 손님 옷 몰래 입고 줄행랑

○광주의 한 고깃집에서 현금 등이 든 다른 손님의 옷을 몰래 입고 나온 50대 목수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입건.

○30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염모(52·광주시 서구 양동)씨는 지난해 12월 27일 밤 10시55분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한 식당에서 현금 30만원이 든 박모(52·서구 상촌동)씨의 상의를 훔쳐 달아났다.

○경찰 조사결과 염씨는 이날 일을 마치고 식당에서 동료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는데, 경찰에서 “술에 취해 박씨의 옷을 내 옷으로 착각해 잘못 입고 나왔다”며 공책한 변명.

○경찰은 식당 주인과 인력소개소 등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벌이던 중 염씨가 광주 모 인력소개소를 자주 다닌다는 정보를 입수, 염씨를 검거.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상습 범죄 ‘광주 발바리’ 무기징역

‘대리시험’ 여수시의회 의장 구속

4년간에 걸쳐 43차례나 성폭행과 강·절도 행각을 벌여 속칭 ‘광주 발바리’란 별칭까지 얻었던 30대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강신중)는 30일 주택에 침입해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 강도·강간 등)로 기소된 이모(39)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가석방된 뒤 더 흉포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과정의 계획·대담성 등에 비

취보면 이씨의 범죄의지가 매우 강력하고 동종의 죄를 저지를 우려가 매우 높다”면서 “더 이상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씨를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수사기관에 검거된 이후에도 피해를 신고한 피해자들의 유전자검사결과에 의해 본인의 범행이 드러나기 전에는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대리시험을 통해 검정고시를 통과한 김정민 여수시의회 의장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정은 30일 검정고시 시험을 대리 응시한 김의장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광주지법 순천지원 류연중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김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장은 지난 2003과 2004년 자신의 종중, 고졸 검

정고시를 지인에게 대리 응시토록 해 각각 합격현 협의를 받고 있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광주 전문메디칼센터
www.gpmc.com
전립선 비대증-KTP 레이저
신장·요관경석-충격파 쇄석기
남성수술클리닉, 여성 요실금 수술
상담 전화 (062)233-5119
11:00~19:00 (평일) 10:00~13:00 (일요일)

멕시코 봉사활동 전남대생 실종

국제봉사단체를 통해 멕시코에서 봉사활동 중이던 전남대생 B(25)씨가 멕시코 태평양쪽 해안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실종됐다.

전남대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6일 오후 5시30분께 멕시코 중부 미초아칸 주(州)의 태평양 쪽 해안 플라야아슬에서 수영을 하다가 높은 파도에 실종됐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B씨 등 전남대생 3명과 일본, 벨기에, 이스라엘 등 국적의 일행 7명은 국제봉사단체인 ‘평화의 봉사자들’이 주관한 인터내셔널 워크 캠프 프로그램에 따라 지난 9일부터 25일까지 멕시코 미초아칸 주의 오지에서 봉사활동을 벌였다.

멕시코 군경은 현재 B씨의 시신을 찾기 위해 수색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남대는 교수와 직원 등 2명을 B씨 가족들과 함께 멕시코에 보내 정확한 사고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